

강진군, 장마철 고추·단감 탄저병 주의 당부

무안군,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교육 실시

강진군이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발생 우려가 커지는 고추와 단감 탄저병 예방을 위해 농가 현장 지도와 사전 방제 관리에 나섰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폭염과 잦은 비가 이어지는 여름철 기상여건에서 탄저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추와 단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과 확산이 쉬운 병으로, 감염된 과실은 물러지면서 흑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낙과로 이어져 농가의 상품성과 수확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탄저병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적정 약제 사용법과 방제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며 “병 발생 전 예방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든 과실과 잎 등 감염 부위를

신속히 제거해 병원균 확산을 막고, 약제 살포 시에는 작물 전체에 약액이 충분히 닿도록 꼼꼼하게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 작용방식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김순옥 소장은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 고추와 단감 탄저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병해충 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재 기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고추밭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은 지난 13일 무안군청 전산교육장에서 ‘202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실무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간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21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 실무자들의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금 집행과 회계 처리 ▲보험 시스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의회, 제406회 임시회 개최



목포시의회가 제40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의회(의장 이형완)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제13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성휘 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보고를 비롯해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형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목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제13대 목포시의회와 민선 9기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공식 회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태 기자

“의제 선정부터 해결까지”...함평 대동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이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차지와 참여 활성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14일 “대동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한 ‘경로당 화장실·출입구 안전바 설치 사업’이 이날부터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화장실과 출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사전 조사를 통해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을 확인했으며, 육동경로당을 비롯한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

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대동면에서는 ‘경로당 화장실·출입구 안전바 설치 사업’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운영’과 ‘기억의 사진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여름철 치매환자 안전관리 강화

신안군(군수 김태성) 치매안심센터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관내 치매 환자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치매 환자 특성상 폭염기 집중적인 돌봄과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고위험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주 1회 이상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매일 1회 안부 확인’ 비상 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 가정에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냉방기기 점검과 폭염 예방수칙 안내를 통해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3일간 릴레이 생활 속 안전캠페인 전개

영암군이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이 많이 찾는 실버대학과 전통시장, 관광지를 돌며 생활밀착형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금정면 실버대학과 영암5일시장, 월출산기찬랜드에서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9일 금정면 실버대학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전동차 안전수칙과 보행 안전을 안내하고, 반사스티커와 쿨스카프를 배부하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10일에는 영암경찰서와 영암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암5일시장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수칙과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았다. 11일에는 기찬랜드 개장에 맞춰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문수 기자

